# “우뢰처럼 쟁쟁한 가르침 되새기겠습니다”

## 성철 대종사 열반 30주기 추모 삼천배 정진법회

**해인사 성철 스님 사리탑서**
**500여 대중들 동참해 정진**
**“큰스님 가르침 선양” 다짐**
**‘선림고경총서’ 무료 공개 등**
**30주기 추모사업들 잇달아**

성낙두 경남지사장

조계종 종정을 지낸 퇴옹당 성철 대종사 열반 30주기를 맞아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추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백련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은 10월 28일 합천 해인사 성철 대종사 사리탑에서 삼천배 추모정진법회를 봉행했다.

삼천배 정진에 앞서 열린 입재식에서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제가 백련암으로 출가한 지 52년이 됐고 스님께서 열반하신 지 30주년이 됐다. 30년 전 스님 열반 당시 50세였는데 어느덧 80살이 됐고 신도님들도 연로해지셨다. 저에게나 우리 신도님들이 느끼는 세월의 무게가 남다를 것 같다”며 “500개의 좌복을 준비했는데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가라앉히시고 삼천배에 온 정성을 쏟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 동참한 사부대중은 원택 스님이 낭독한 ‘성철 종정예하 열반 30주기 사리탑전 삼천배를 봉행하는 우리의 다짐’을 통해 큰스님의 가르침을 선양할 것을 다짐했다. “큰스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30년이 되었지만 스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아직도 우뢰처럼 쟁쟁하다”며 “자기는 아주 잊어버리고 영원에서 영원이 다하도록 오직 일체중생을 위하여서만 산다. 법성이 무진하므로 법계가 무한하며 법계가 무한하므로 시분이 무량하다. 시분이 무량하므로 중생이 무변하며 중생이 무변하므로 자비가 무궁하다”는 큰스님의 말씀을 가슴에 다시 한번 되새겼다.

대중은 이어 “자기를 바로 봅시다”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남모르게 남을 도웁시다” “일체중생 행복하게 하소서”라고 외치며 삼천배 정진에 임했다. 삼천배 추모 정진은 1시간에 500배가 이뤄졌으며, 저녁 무렵 온전히 회향했다.

원택 스님은 회향사에서 “대종사께서 열반하시고 신도님들의 가슴이 허전한 마음을 채워야겠다는 생각에 매년 스님의 기일에 맞춰 삼천배 정진을 이어오고 있다”면서 “큰스님의 법력도 대단하지만 큰스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른 신도들이 보배로운 존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세세생생 큰스님의 법이 흐르고 불교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기를 바란다”고 서원했다.


백련문화재단이 10월 28일 해인사 성철 대종사 사리탑에서 삼천배 추모정진법회를 봉행했다.

한편, 백련불교문화재단은 성철 대종사 열반 30주기를 맞아 다양한 추모행사를 진행했다. 10월 30일부터 성철 대종사의 기일인 11월 3일까지 백련암 고심원에서 4만 8천배 철야정진을 이어갔다. 이후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열반 30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또한 재단은 11월 3일자로 ‘선림고경총서’ 37권 전권을 전자책 형태로 ‘성철넷’에 무료로 공개했다. 이에 따라 ‘선림고경총서’는 성철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열람할 수도 있으며, 각각의 책에 대한 링크는 SNS를 통해 공유해 개인용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열람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

‘선림고경총서’는 1984년부터 번역자를 탐문해 번역을 시작했으며, 1987년 가을 선문의 소의 경전에 해당하는 어록을 한 권으로 묶은 〈선림보전〉이 출간됐다. 이후 1993년 〈벽암록〉 상 · 중 · 하 3권을 발행함으로써 ‘선림고경총서’ 전 37권이 완간됐다.

원택 스님은 “‘선림고경총서’는 선의 바른길을 현창하고자 했던 은사스님의 정신과 30년에 걸친 추모사업의 근간이었다”면서 “이제 세계 어디서라도 편리하게 ‘선림고경총서’를 열람해 조계(曹溪)의 맑은 물을 맛보는 계기가 되고, 우리 각자가 지니고 있는 ‘고경(古鏡)’을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 “지역과 함께하는 부처님 도량 만들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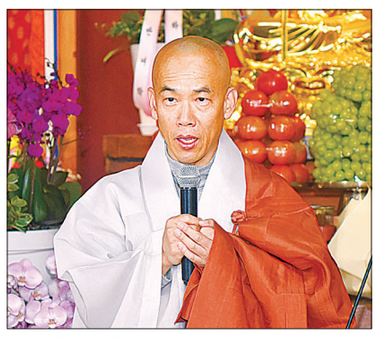
## 광주 문빈정사 주지 법공 스님 취임법회

**조실 지선 스님 법문 설해**
**“깨친 민주시민이 곧 보살”**

광주 무등산 문빈정사(주지 법공)는 10월 29일 경내 대웅전에서 ‘지선 큰스님 특별법회 및 신임 주지 법공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창건주 승계와 함께 주지에 취임한 법공 스님은 취임 소감을 통해 “저의 오랜 기간 의지처였던 문빈정사는 어린이에서 청소년, 청년, 노보살들까지 항상 신도들의 밝은 웃음과 기도정진이 끊이지 않은 수행공동체였다. 특히 은사인 지선 큰스님께서 민주화운동에 헌신하고, 불교 개혁에 큰 발자취를 남긴 역사 깊은 장소”라며 “앞으로 저와 더불어 문빈정사의 모든 대중은 화합과 수행의 원력을 굳건히 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도량으로 만들고, 지역사회 대중의 아픔을 같이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하는 사찰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많이 부족한 저를 믿고 창건주 승계를 해주신 은사스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문빈정사가 광주를 대표하는 사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임 주지 법공 스님.

조실 지선 스님으로부터 창건주 권리승계서와 주지 임명장을 받은 법공 스님은 부처님과 은사스님, 신도들에게 각각 3배를 올리며 주지로서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주지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문빈정사 조실 지선 스님, 대구 보광사 주지 화명 스님, 증심사 주지 중현 스님, 광덕사 상진 스님, 이병훈 국회의원, 김재식 동구의회의장, 이범식 前 광주불교연합회신도회장을 비롯해 신도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지선 스님은 법문을 통해 “주지스님과 신도들이 마음을 다해 문빈정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격려하며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하고, 현재 사회에서는 각성된 민주 시민이 보살이다. 민주시민으로 보살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유주무주 모든 존재에게 평화를…

## 참당암, 영산대재 · 산신재
## 천왕문 주춧돌 발견 기념

지장참회도량으로 널리 알려진 고창 선운사 참당암(선원장 법만)이 10월 29일 제3차 천일기도 중 900일 기도 입재를 맞아 영산재와 산신대재를 봉행했다.〈사진〉 전국 각지에서 100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해 삼독을 없애고 과거 모든 업장이 소멸되기를 기원했다.

이날 영산재는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단권공, 축원 및 법문, 식당작법, 권공, 신중퇴공, 시식, 산신대재 및 소대의식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당암 선원장 법만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3차 지장기도 900일, 기도를 시작한 지 2800일을 맞아 영산대재와 산신대재를 봉행하게 됐다”며 “〈금강경〉에 아상, 인생, 중생상, 수자상의 사상을 여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말처럼 유주무주 모든 존재가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선 수행과 참회 기도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실천해서 인생의 참 행복이 어디있는지를 알아가는 참된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산대재를 마친 대중들은 이어 의운국사 산신재를 봉행했다. 특히 이날 산신재는 참당암 수로공사 중 발견된 천왕문 터 발견을 축하하는 자리로 그 의미를 더했다.



참당암 천왕문 터는 대웅전과 마주 보는 곳에 있던 것으로 수로의 물길을 바로잡는 공사 중 주춧돌이 발견됐다. 이를 계기로 참당암은 천왕문 복원 등 종합 불사계획을 수립해 복원에 나설 예정이다.

참당암 천일 지장기도는 2015년 7월 5일 시작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선원사 ‘만의의사 수륙재’ 100여년 만에 재현

## 국운융창과 남원발전 기원
## 21세기 들어 처음 봉행돼

남원 선원사 ‘만인의사 수륙재’가 100년 만에 재현됐다.

남원 선원사(주지 운문)는 10월 28일 경내 앞마당에서 국운융창과 남원발전을 염원하고, 남원 만인의사 영혼을 천도하는 ‘선원사 만인의사 호국 수륙재’를 봉행했다.〈사진〉

수륙재는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에서 왜군과 싸우다 전사한 만인의사의 영령을 달래기 위해 시작됐다. 일제강점기 당시 만인의사에 대한 제향이 일제에 의해 폐지됐다 100여년 만에 재현됐다.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봉행된 ‘선원사 수륙재’는 남원사암연합회가 후원했으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산스님들이 대거 참여했다.

선원사 주지 운문 스님은 “오늘 수륙재 동참 공덕으로 남원지역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세종전통문화체험관, 전월산음악회 성료

## 첫 음악회,시민 호응 높아

세종전통문화체험관(관장 원묵)이 10월 28일 관내 2층 중정에서 ‘제1회 전월산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음악회에는 세종전통문화체험관 관장 원묵 스님과 사무국장 선중 스님, 안신일 세종시 시의원, 송아영 국민의힘 시당위원장 등 세종 시민 100여명이 음악회에 참석했다. 특히 전통 한옥 아래서 펼치는 클래식 공연에 시민들의 호응은 높았다.

이날 음악회 공연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세종클래식음악연구소가 진행했다.

이날 세종클래식음악연구소는 여인의 향기 OST로 유명한 ‘por una cabeza’부터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OST ‘언제나 몇 번이라도’, ‘비목’, ‘연꽃 만나고 가는 파람같이’, ‘아리랑’, ‘아름다운 나라’ 등을 공연했다.




관장 원묵 스님은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열린 전월산 음악회에 내외빈 모두가 참석하여 자리를 밝혀 주셔 감사하다”고 전했다. 신중일 기자

# 월정사, 명상으로 녹색사회 꿈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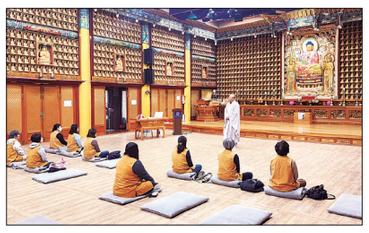
## 10월 27~28일 ‘그린 명상 대화’
## 기후위기 극복 위한 강연 열려

명상을 통한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꿈꾸는 프로그램들이 명상힐링 성지 월정사에서 진행됐다.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는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뭇 생명과 함께 조금 느린 하루’를 주제로 ‘그린 명상대화’ 프로그램을 개최했다.〈사진〉

1박 2일 경내 대법륜전에서 열린 ‘그린 명상대화’에서는 청년, 교사, 직장인 등이 참여해 세 차례에 걸쳐 명상을 체험했다. 명상대화 지도법사로는 동국대 WIS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혜성 스님과 월정사 사회국장 지철 스님이 맡았다.

명상대화 1, 2를 진행한 혜성 스님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법은 ‘인과’다. ‘인과’ 법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생각해보면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기 때문”이라며 “너와 나, 자연과 인간(문화)은 독립되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삼천대천 세계가 인드라망임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삶의 가치가 서면 기후위기 극복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천문학자 이명현 박사의 ‘천년의 대화’ 우리는 별 먼지’ 특강과 생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신중일 기자

# 광주 지역 사찰들 무등산 산사음악회 개최

## 증심사 · 약사사 · 문빈정사 공동
## 원효사 신도회도 29일에 개최

가을 광주 무등산을 만끽하는 음악회가 열렸다.

광주 무등산 증심사(주지 중현), 약사사(주지 무진), 문빈정사(주지 법공)가 공동으로 마련한 ‘무등산 가을 산사음악회’가 10월 28일 문빈정사 앞 광장에서 열렸다.〈사진〉 10월 29일에는 원효사(주지 해청) 신도회가 주최한 ‘원효사 산사음악회’도 개최됐다.

행사에는 포크가수 박강수, 이광배 밴드의 포크송과 공연아티스트 신디의 마술, 트롯가수 나혜진 등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해 가을 음악의 진수를 선보였다.

공연과 더불어 3곳 사찰 주지스님들의 사찰 안내와 소감을 듣는 시간도 진행됐다.

증심사 주지 중현 스님은 “무등산 증심사는 광주 대표 사찰로, 템플스테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힐링을 제공하고 있다”며 “지친 현대인들에게 언제나 평안을 주는 도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사 무진 스님과 문빈정사 법공 스님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찰의 문화 프로그램들을 소개했다.

다음날 열린 원효사 산사음악회에서는 가수 정용주를 비롯해 소리노리, 김영식 웃음박사, 여우비 통기타, 박은숙, 김용철, 지주자, 노래발자국 등이 무대에 올라 흥겨운 음악과 웃음을 선사했다.

신도회가 마련한 이날 행사에서 원효사 주지 해청 스님은 “사찰에서 다 함께 음악을 듣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 기쁘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광주영산재보존회, 영산재 시연회 봉행

## 10월 28일 광주전통문화관서

사)광주전통불교영산재보존회(회장 월인)가 10월 28일 무등산에 위치한 광주전통문화관에서 ‘제19차 시연회’를 개최했다.〈사진〉

광주시무형문화재 23호 지정된 ‘광주영산재’의 정기시연 행사로, 이수자인 월인 스님(법륜사 주지), 호산 스님(세심정사 주지), 혜령 스님(율곡사 주지)을 비롯해 4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했다.

월인 스님은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된 영산재는 해탈과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의식”이라며 “영산재 이수자의 후학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영산재는 2014년 범패에 혜령 스님, 바라에 호산 스님, 작법에 월인 스님이 지정되어 현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광주전통불교영산재보존회는 매년 연수교육 등 후학양성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위령재와 서구청 위안부 희상재를 위한 위령재 등 다양한 공익적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동국대 WISE캠, 불교 어린이 음악축제 개최

## 10월 30일 유아교육과 주최로

동국대 WISE캠퍼스 유아교육과는 10월 30일 경주엑스포대공원 문화센터 공연장에서 불교 어린이 음악축제를 개최했다.〈사진〉

‘구름애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불교 어린이 음악축제는 동국대 WISE캠퍼스 유아교육과, 동국대학교 부속유치원, 국공립현곡푸르지오 어린이집, 근로복지공단 경주어린이집, 이편한 로렌츠어린이집, 휴포레 어린이집, 중앙가야스트라, 그리고 예작 등 다양한 공연팀과 학부모들이 참가하여 어린이들과 가족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

이번 불교 어린이 음악축제는 불교문화와 음악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인문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어린이들에게 문화와 예술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다양한 음악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와 상상력을 키워주는 자리로 꾸며졌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이번 불교 어린이 음악축제를 통해 불교미래의 심장인 어린이들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하기를 기원하고 미래를 바라 볼 수 있는 역량의 씨앗이 심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